

‘책 향기 가득’ 독서축제 열린다

28일 제7회 도서관 문화마당
유현준·김영하 강연도 ‘눈길’



김영하 유현준

광주시립도서관과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 오후 1~7시 광주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제7회 도서관 문화마당’을 개최한다.

광주지역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단체, 출판사 등 45개 기관이 참여해 ‘북(Book)극성, 도서관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운영한다.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시립도서관과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7회 도서관 문화마당을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해 6회 행사 모습.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독서관련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책과 함께하는 별별장터’ 도서관 역사, 독서코칭과 함께하는 ‘나는 도서관입니다’ 전시코너가 마련된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싶은 어린이들을 위해 인형극 ‘지혜로운 곰지와

왕룽구멍’이 오후 1시에 극장3에서 열린다. 아울러 TV프로그램 ‘알쓸신잡’에 출연한 건축가 유현준, 소설가 김영하씨의 강연이 열린다.

건축가 유현준씨는 이날 오후 3시 ACC 극장3에서 ‘사람이 만드는 도시, 도시가 만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소설가 김영하는 오후 5시 국제회의실에서 ‘독서의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친다.

광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문화마당 행사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책이 주는 즐거움을 나누고, 더 볼여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062-613-7735)

/정겨울 기자 jwinter@kdaily.com

여행자이자 거주자 시점으로 본 색다른 여행 에세이



‘시애틀 이야기’

김태엽·윤찬식·황양준공저
수필과 비평사
1만8천원

항공사·외교부직원·기자 공동 출간
다각도서 바라본 서북미 매력 뽐내
“전세계서 사랑받는 여행지 되길”

항공사 직원, 외교부 직원, 기자라는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세 명이 시애틀의 매력을 담아낸 ‘시애틀 이야기’를 공동 출간해 화제다.

주인공은 아시아나항공 시애틀 지점장을 거쳐 현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부장, 윤찬식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공사(시애틀총영사관 전 영사), 황양준 일간 한국일보 시애틀지사 편집국장이다.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대학을 졸업한 소위 ‘386세대’인 이들은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40대 중반 시애틀에서 만나 끈끈히 교류하다 각자의 관점을 하나로 모으는 여행 에세이를 내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부장은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시애틀 지점장으로 주재하면서 느낀 시애틀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이 책에 고스란히 옮겼다. 김 부장은 ‘서북미 지리의 탄생’, ‘빙하지형 위에 세워진 시’, ‘깊고 푸른 호수들’ 등 23편의 글에서 시애틀의 자연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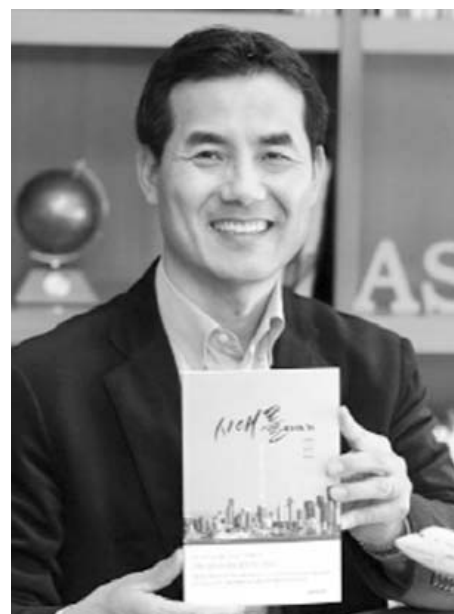
윤찬식 시애틀총영사관 전 영사는 ‘미국

국가지도의 완성 과정’, ‘미국의 대통령’, ‘서북미의 매력과 가치’ 등 16편의 글을 통해 미국의 역사·인권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황양준 국장은 ‘결국은 사람이었다’, ‘한국 현대사와 한인이민사의 산증인’, ‘지질 줄 모르는 열정과 위대한 도전’ 등 12편의 글에서 한인 이주자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여행자이면서 거주자의 시선이 적절히 녹아들여 시애틀의 곳곳을 두루 살펴보고 있는 느낌이 들 만큼 현장감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부장은 “시애틀하면 스타벅스 1호점과 스페이스 니들 타워를 먼저 떠올리는데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은 멋진 여행지가 많다”며 “이 책을 통해 시애틀, 나아가 서북미가 전세계 여행객들로부터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부장이 책 ‘시애틀 이야기’를 들고 미소를 지어보고 있다.

/작가 제공

더 사랑받는 여행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겨울 기자 jwinter@kdaily.com

‘미디어셀러 열풍’…스타가 읽어 더 멋져보이는 시·소설

아이돌 SNS 타고 출판시장 흔들려

TV에 등장하거나 스타들이 읽는 책으로 SNS 등 인터넷에서 퍼져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미디어셀러’가 최근 서점가를 지배하고 있다. 이전에도 이런 책이 꽤 있었지만, SNS로 확산이 더 빨라진 시대가 되면서 더 두드러진 현상이다.

인터넷·영상문화 발달로 책이 잘 팔리지

않아 율상이었던 출판·문학계는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방송·연예계에서도 책의 힘으로 콘텐츠와 스타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원·원’하는 결과여서 앞으로도 미디어셀러는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온라인서점 예스24에 따르면 나희덕 시인의 시집 ‘그곳이 멀지 않다’(문학동네)는 수록시 ‘푸른밤’이 이달 9일 SBS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에서 낭독되면서 직후 4일간 판매량이 직전 동기간에 비해 12배 이상 뛰었다.

이달 6일 방송된 tvN ‘숲속의 작은 집’에서 소지섭이 읽은 사노 요코의 ‘죽는 게 뭐라고’(마음산책)는 다음날인 7일부터 예스24에서 1천 부 가까이 팔려나갔고, 같은 프로그램에서 박신혜가 읽



그곳이 멀지 않다



죽는 게 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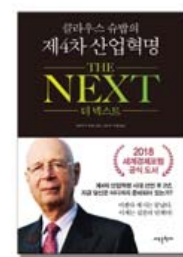


파리의 아파트

은 기욤 뫼소의 소설 ‘파리의 아파트’도 판매량이 부쩍 늘어 지난해 교보문고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새로 나온 책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더 넥스트 =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했던 클라우드 슈바프(책 표기는 슈밥)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회장의 책.

이번에 나온 책은 2016년 출간된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의 속편 격이다. 첫 책이 4차 산업혁명의 개요와 기본 어젠다를 제시했다면 이 책은 올해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4차 산업혁명 혜택의 공정한 분배,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와 피해 같은 외부효과 관리, 인간 중심을 세 가지 도전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신경기술, 생명공학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12개 기술 분야를 선정해 최근 사례를 살피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을 예측한다.

슈바브 회장은 서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권층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개인, 사회, 조직, 정부에 영향을 끼치게 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로문화재·1만7천원



▲나무에게 나를 묻다 = 정상희 지음. 경제일간지 기자인 저자가 각자 다른 분야에서 나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섯 명의 이야기를 전한다.

제주 환상숲 꽃자왈 공원의 이지영 숲해설가, 강원도 횡성에서 미술관 작가나무를 운영하는 사진가 원종호, 충북 괴산의 기타공방에서 수제기타를 만드는 김희홍 명인, 충북 단양 정향나무농장에서 멸종위기에 놓인 토종 라일락을 복원하는 전직 기자 김관수, 서울에서 우드 카빙(wood carving) 공방을 운영하는 나무작업가 남부루 등 나무를 통해 시간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묵묵히 채워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돈을 좇지 않더라도 인간의 삶이 풍요롭고 재미있으며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욕망에 허우적대는 현대인들에게 발밑과 등 뒤를 돌아보라고 제안한다.

/아마디아·1만2천800원



▲산업한류혁명 = 박광기 지음. 삼성전자 부사장을 지내고 현재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소장인 저자가 한국과 국내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업한류’를 제안한다.

저자는 내부적으로는 저성장, 고령화, 취업 절벽, 외부적으로는 선진국의 보호 무역, 중국의 거센 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는 신흥 개도국의 ‘허브국가’로 진화하기 위한 ‘산업한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까지 산업화를 진행한 경험과 다양한 제조업종의 기술, 인프라 건설 노하우를 가진 한국이야말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술 전수, 투자 유치 등이 필요한 신흥 개도국에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신흥 개도국이 확대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에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제신문·1만8천원

귀하의 당선40%를 in2 Studio 가 돕겠습니다

당선을 원하십니까?

정치광고 전문사진작가를 만나보셨습니까?



정치광고 전문사진작가 김 정 원

정치광고에서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38.7~40%라고 합니다. 저는 사진을 소홀히 하여 낭패보는 후보자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인스튜디오는 귀하의 큰 뜻을 유권자에게 정직하게 전달할 완벽한 시스템의 촬영세트를 갖춘 전문스튜디오입니다.

정치광고 전문사진작가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어낸 창조적인 사진은 유권자에게 진심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에 대한 귀하의 확신을 인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867번길 23-1 (상무지구, 상무병원 건너편 호대방향)

T.062.374.6400 / http://kjins.co.kr

아트인커뮤니케이션(주)

in2STUDIO
Gwangju In Studio 광주인스튜디오